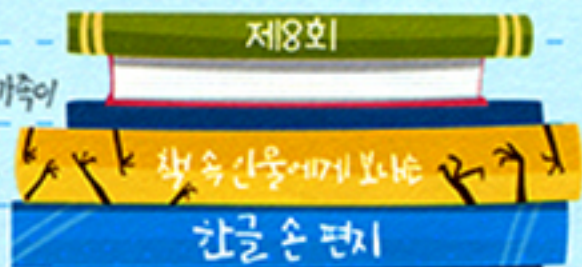


- 활발한 솔미에게 -

안녕? 솔미야! 나는 11살 경은이라고 해.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너를 보고 감탄했기 때문이야. 네가 "여자가 왜 이렇게 기가 세? 들이 성질이 바뀐거 아냐?"라거나 "오빠는 양친한테 넌 왜 이렇게 말쑤랑이냐?"라며 어른들이 오빠와 너를 비교한다고 했잖아. 넌 그게 잘못된 행동인 걸 알고 "그게 뭐 이따서?"라고 당당하게 말했어. 사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남자아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하지만 난 너처럼 "그게 뭐 이따서?"라고 말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넌 말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난 널 존경해. 지금은 널 알게 됐으니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달라고 말할 거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맙냐고? 위에 쓴 것과 같이 널 보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내가 잘못된 행동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잖아. 그게 고맙다는 거야.

또 나는 너도 존경하지만 양심평등한 너의 아바도 존경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너희 아바께 꼭 전달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경은이예요. 저는 성차별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솔미 아바를 존경해요. 하지만, 노력에도 고통이 따르는 밍! 때때로 솔미 아바께서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솔미 아바같은 귀대한 분은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실수를 적어 오답노트를 만들면 성차별적인 말을 아예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이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런 내가 생각해 보건데 너희 가족이 성차별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뭘 쓰거나 레드 카드를 주잖아.





저번에 우리 엄마께서 "여자아이가 너무 남자답다" 라고 하셨는데 나도 엄마께  
옐로카드를 드려야 해? 솔직히 난 기분이 나쁘진 않았거든. 오히려 난 웃었어. 그리고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옐로카드, 레드카드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카드를 주면 어때? 좋은말 카드 말이야.

요즈음엔 사람들이 남녀 구분없이 가질수 있는 직업이 다양해졌어. 집에서부터  
성차별하지 말고 좋은말 카드를 나누어주며 각자의 재능을 응원해 주자!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수 있을거야!

앗!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럼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자. 안녕!

2022. 8. 9(화)

- 양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정은이가 -

